

군산시 행정소송 당할 처지에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 센터” 파행에 따른
비상식적인 행정처리 등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릴 것

서수면 무궁화 문화 복지센터의 개장과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군산시 서수면 이유청 면장 부임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기반 시설 투자 및 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에 구성된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추진위원회에서 승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근거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농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근거한 농축산 식품부 운영 지침에 따라 활동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유청 서수면장 이후, 군산시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이하 농중활 위원회)와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5월 임시 개소에 이어, 지난해 말 공식 준공허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수면 농중활 운영위원회를 배제한 채 행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농 중활 위원회 측은 시장과 면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농 중활 위원회에 대한 군산시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농중활 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와 서수면장, 회장이장이 주동하여 몇몇 이장등이 이에 동조하여 농중활 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고 주도 면밀하게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 과정에서 면장 등 전직 공무원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더욱이, 센터 내 운영사무실과 카페의 운영을 농 중활 위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맡기려는 서수면 행정의 시도는 농중활 위원회는 물론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에 이르렀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농중활 위원회 위원장(최연호)은 군산시의 방해 행위로 인해 서수면 농중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총 선거가 끝나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온 단체가 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를 세우려는 행정기관의 독선적이고 부도덕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농촌 활성화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편집국)

새만금 시대

마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최연호(이사장.서수면사람들)

새만금 영토분쟁을 끝내고 도래하는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북 특별자치도 시작과 함께 민관은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적, 경제적 경계를 넘어서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있어야 하는 데 본 안은 익산,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여 메가시티를 창설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새만금에 특례시를 만들어야 한다.

각 도시 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의 다각화와 경제 규모의 확대를 이룰 수 있는 통합 메가시티는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통합 및 효율화 차원의 교통, 통신, 공공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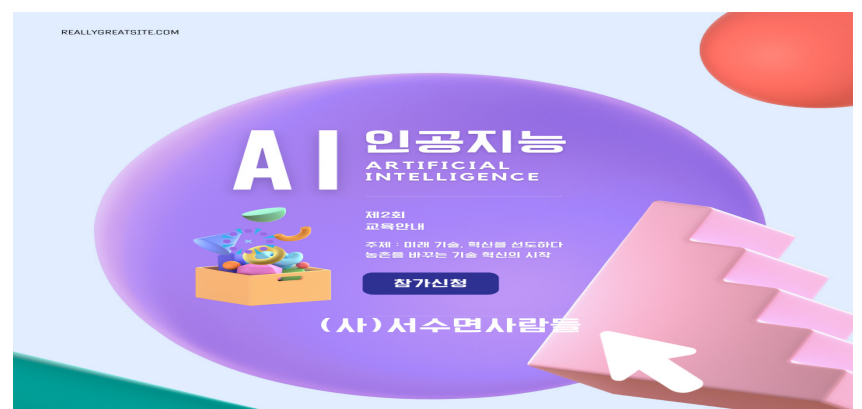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대규모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인프라와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 거버넌스 구축은 각 지역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위원회를 설립하여, 통합 과정의 방향성과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적 통합 전략 수립하여 통합 메가시티의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창업 및 혁신 촉진, 그리고 국제 무역과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통합된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그리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통합 메가시티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네 개의 도시와 군을 통합한 메가시티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달성하는 혁신적인 도시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필자는 네 개의 시 군을 통합한 이름은 마한시(마한 특례시)로 하면 어떨까 한다.



서수면 이대로 좋은가

군산시 공무원들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에 이권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극소수의 비위 일탈 공무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 공무원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니 놀라지 않았으면 한다.

공무원 현장에 담겨있는 투명성과 창의성, 전문성, 다양성, 민주성, 도덕성은 그 어떤 것 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공무원이 책임감이나 사명감보다 먹고사는 것을 떠나 자신의 이익에 우선한다면 이는 한 발짝 나쁜 길로 내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군산시 서수면의 이모 면장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일들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평해야 업무를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주민사업을 방해하고 자신과의 친분을 가진 전 현직 공무원들과 일부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들과 주기적으로 음식과 술을 나누며 세를 불리며 때로는 시장과의 두터운 신뢰를 과시하기도 한다.

이모 면장이 부임한 이래 서수면 농촌활성화 사업은 한시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군산시장의 재판 선고 날짜전에 임시 개청식을 해야 한다며 준공식 자금을 전용하는가 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공로자로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전직 공무원을 몇대로 선정하여 수여하는가 하면 임시 개청 이래 1층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에서 행해지는 서수면 활성화 사업에서 진행된 크고 작은 행사에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민 적도 없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집무실에서는 전직 공무원 출신들과 사익에 목 말라 하는자들과 지나칠 정도로 만남을 가지며 정작 농중활 운영위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수면 행정 책임자로서 현 면장의 행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사사건건 농중활 사업을 방해하다 못해 황당한 것은 교육사업을 위해 폐쇄시켜 놓은 농중활 운영사무실을 사용하려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작업 및 컴퓨터 사용을 하자 운영사무실 현판을 제거하였다.

또 한가지 사례를 보면 며칠전 경북 산청에서 농중활 사업팀이 선진지 견학을 서수면에 왔다고 한다. 서수면농중활 위원들도 과거 수 많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적이 있는 데 그 때마다 그 지역 면단위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조율하였고 해당 기관은 농중활 사업팀에 연결하여 해당 농중활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안내를 받으며 그간 사업과정을 설명받아 왔다. 그런데 서수면 행정은 농중활 위원회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농중활에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농중활 관련 외부 손님들 센터 시설만 구경케 하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서수면에는 업무 지침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이 작금에 서수면이 우리 농 중활 운영팀을 보고 있는 시각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주민시설에 면장실이 자리 잡고 있어 이는 설계에도 없고 본 무궁화 문화복지센터에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아 면장실은 본 설계대로 행정청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이 건물 소유권이 군산시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답변만을 얻었을 뿐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할 뿐이다.

서수 농중활 운영팀은 그간 8년간에 걸쳐 회비를 내가며 서수면을 위해 봉사해 왔고 그 누구보다 농중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축적하며 사업들을 해오면서 서수면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노력해 왔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고 시정되지 않으면 상위기관, 국민신문고, 감사원이 있고 사법부로 갈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일이나 비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나서기에는 무리이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는 공무원 조직은 철저한 국가관과 인재를 선정해 교육시키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편집부)

표류하고 있는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마음대로 행정

커뮤니티 복지와 문화적 풍요의 상징으로 보았던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 센터가 군산시장을 비롯한 무능한 공무원들의 기념물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장(최연호 용성마을)은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가 준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와의 중요한 위탁계약을 방기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무궁화문화복지센터에서의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실질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리 실패는 서수면 주민들이 문화복지 센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복지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온 군산시의 책임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상위기관의 지침조차 무시하고 바뀐 지침을 소급 적용하는 공무원의 무지에 있으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군산시장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업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정치적으로 평가르기식의 행정을 펼침으로서 교착상태로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농촌사업의 실패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의 구조에 대한 절차준수와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능력 부족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명백한 서수면 주민 무시를 뜻하기도 한다며 군산시는 시시비비를 철저히가려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무국장(이정란)은 군산시는 자체 행정절차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지침준수와 관리 미스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프로젝트 실패는 행정적 부주의와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군산시는 이 오류를 바로잡고 더 나은 거버넌스와 책임을 다 하는 데 약속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군산시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토착화된 선출직 지방권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며 군산시를 성토했다. (편집부)

지역 상생과 ESG,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

우리 서수면은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특히,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영리법인 단체법인인 (사)서수면 사람들이 제시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 기반의 지역 상생 협업 모델을 제안해 본다.

지역 사회와 기업이 상생하는 이 모델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자본과 기술, 네트워크를 지역의 잠재력과 결합시킴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은 이 협력 모델의 핵심이다. 예컨대, 농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판매, 친환경 문화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ESG의 가치를 실현한다.

또한,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은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강화한다.

이 모델의 성공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달려 있다. 정기적인 대화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사업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기업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지역 상생과 ESG를 기반으로 한 협업 모델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 길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길 때이다.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협력과 혁신에 달려 있다.



환경교육 실시 - 서수초 임피 중학교 대상

서수환경지킴이(회장 이정란)는 지역 서수초등학교와 임피중학교에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목적이다.



<사진: 임피중학교>

학생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배운다. 교육은 재미있는 활동과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서수 환경 지킴이의 이정란 회장은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함으로써 미래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환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며, 집과 학교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많은 학교로 확장될 예정이다. 서수 환경 수호자는 이 교육이 아이들을 환경 보호의 중요한 참여자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서수 환경 수호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수상작 서수초등학교>

전북KBS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이마을 주민들

아이 마을(이장 이운기) 주민들이 지난1월31일 명절을 맞아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통하여 전북KBS를 통해 기부하였다. 이 행사는 지역 공동체의 단합과 상호 지원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모금 행사를 통해 우리 마을의 연대감과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고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며

지역	금액
안주군 봉동읍 오뚜그란데아파트1마을	451,000
군산시 서수면 아이마을	203,400
임실군 청웅면 두복마을	92,000
안주군 도산면 학동마을	210,000

사진: KBS TV 사진 캡처

이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지역 사회의 강한 결속력과 기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이운기 아이마을이장은 말했다.(편집부)



사진: 아이마을경로당 모금함 해체 (이장과주민들)

서수면장은 주민총회 열어야

농중활성화사업을 파행으로 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제임시 서수면 사업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는 전 Y면장에게 공로상 쥐가며 불협화음을 만들고, 회장 이장에게는 연판장을 돌리게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는 데 혈안이 되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사무장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즐기치게 농중활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맹지에 마을사업을 신청하여도 사업허가를 하고, 왜그랬는지 물어도 대답은 없고 이러한 이들과 함께 서수면을 파행으로 이끈 현 면장은 주민총회에서 반드시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설날을 밝히는 따뜻한 마음 독거노인을 위한 선물 나눔 행사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사회가 더욱 따뜻해졌다. 이번 명절에는 독거노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이 바자회 고무신등을 팔은 수익금을 사용하여 마련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행사는 지역 사회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다. 그들은 설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하며, 행사를 통해 준비된 선물을 통해 노인들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사)서수면사람들 임원들은 선물을 직접 포장하고,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독거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소통은 독거노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설날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이종화 부위원장은 “이번 선물 나눔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분들이 명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며, “작은 선물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온정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최연호 위원장과 이정란 사무국장은 서수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전수연.34)을 방문하여 서수면 주민으로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서수면사람들 일원이 되어 정보도 공유하며 베트남 식품 개발등 앞으로 농중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화답을 이끌어 냈다.



사진: 이종화, 이하범, 손창식(원관원마을) 좌로부터

(사)서수면사람들 최연호 이사장은 “모인 수익금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설날 나눔 행사는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독거노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편집부)

서수면 모두가 하나되는 곳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 프로젝트로 지역 활성화에 앞장

농촌활성화사업 (사)서수면 사람들은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을 목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계획에는 지역 특산물 개발, 관광 명소 조성, 문화 이벤트 개최 등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에 있다. 사업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프로젝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친환경적인 관광 개발과 지역 특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주도하는 서수면 사람들 대표(최연호)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 계획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업과 단체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간 방문, 나아가 해외 단체들과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동적인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슴에 내리는 빗소리

이정란

주르르 주르르
쏟아지는 빗소리
겨울 빗소리

그쳤다 이어지고
또 그쳤다
또 이어진다

빗속을 뚫고
미친듯이
달려본다

흐느낀다
매마른 가슴이
찢겨지는 소리

부지직 부지직
통증없는 상처가
더 아프다

흐느낀다.
하늘도 함께
운다



울엄마

박희은

동이트는 아침이면
나팔꽃이 줄을 타고
올라가 해맞이 합니다
처마밑 채송화도 잠에서 깨어
활짝활짝
피어나지요

울밑에선 봉선화가
붉게 물들고
꽃사과는 주렁주렁
익어갑니다

포도나무 잎새에
숨어있는 풀벌레는
가을마중 나와있는데
어찌려고 철없는 꽃사과는 이
염천에
꽃들이 마구마구
피어나는지
울엄마 닮은 하얀 낫달만 웃고
있네요

넓은 들판에는
푸르른 벼잎들이 사그락사그락
살찌우는 소리로 요란한 이즈음
아버지 살아생전에
마당에 말리던 고추가 돌아눕는
시간이라고 하셨을 정도로
뜨거운 한낮에 울엄마는 오수에
들고
창밖에
흘러가는 흰구름에
마음실어 소소한
시골 정취를 올려봅니다

엄마는
딸도 몰라보시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이곳에 살아 계셔서 참 좋다.



(사) 서수면사람들 설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는 23년 8월 사단법인서수면사람들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해 9월전북도 설립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활동을시작했다.

비영리단체인사단법인서수면사람들은 회원수100여 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를확대 개편한단체로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계승하고 서수면 문화경제복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역활성화를 위한단체로 거듭나기로 결의한바 있다.



<사진: 서수면사람들 창립총회>

사단법인서수면사람들 이시장은 최연호(용성마을)씨가 사무국장은 이정란(하용전)씨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서수면발전을 위해 모든역량을동원하여 서수면이 활성화될수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주요 이사로는 부이사장 이종화씨 문화담당 이하범씨 농업담당 채정병씨 기획담당백혁기씨등이 함께하고 있다.



서수면 인공지능(AI) 주민교육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하 농활사업) 일환의 하나로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인공지능(AI)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열악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내에서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이 주최한 이 교육 프로그램은 AI 기술의 기본 원리와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방법을 소개하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AI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

특히 컴퓨터 과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참가자들은 AI의 개념,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 로봇 공학 등에 대한 입문 수준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우리 지역 사회에 AI 기술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고,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업무에 점점 더 많이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AI에 대한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며, “앞으로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더 배우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AI 기술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능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서수면사람들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수 여성 의류 바자회

(사)서수면사람들은 무궁화문화센터 북카페에서 이웃돕기여성의류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바자회는 주식회사 오키(대표:이윤설)가 서수면사람들의 사업취지를 공감하여 기부한 4톤 트럭 한대분의 옷으로 품질이우수하여 성황리에 바자회를 마칠수 있었다고 관계자는전했다



서수면 작은시작에서 큰 변화로

미용의 손길로 따뜻함을 고령의 어르신들께 새로운 봄을 선사

80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서수면사람들(사무국장 이정란)은 노인 복지 향상과 외모를 통한 자신감 회복에 중점을 두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별써 수차례 이어진 봉사 활동은 서수 지역의 다양한 노인 복지 시설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전문 미용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어르신들의 헤어스타일을 가꾸어드리고, 기본적인 피부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봉사단은 어르신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펴, 이들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느끼도록 돕고 있다.

단체 사무국장 이정란 씨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스로를 돌볼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며, “우리의 미용 봉사가 어르신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이 더 밝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자신감을 느꼈다”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 우리 같은 고령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수 지역사회는 이러한 봉사 활동이

서수면사람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단체의 노력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끌어들이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미용 봉사 활동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어 주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수 지역사회는 이러한 따뜻한 손길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봄을 선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수면미용봉사는 미용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전자(문화마을)씨를 비롯하여 김정옥, 김성애, 박희은, 한연순, 이차란, 김민선, 김경희, 신화옥, 문연희씨등이 참여하고있다.



아이마음 용성마을
용희마을 외무장마을



내무장마을 성모요양원.





고마워!
또 해줘!



공방 수업

서수 지역, 교육과 문화의 결합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앞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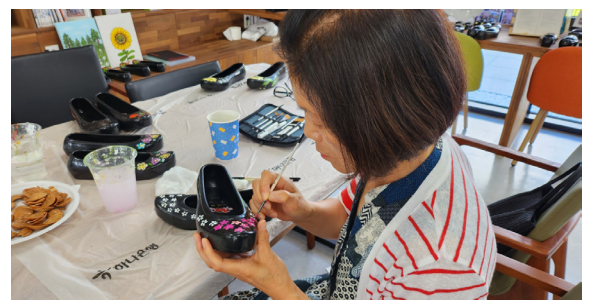
서수면 농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사)서수면사람들은 서수 지역이 교육, 문화, 그리고 식품 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공방 수업, 인공지능 교육, 예술제와 더불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 사업이 주목받으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수면의 공방 수업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공예품 제작을 가르치며, 인공지능 교육은 농업과 식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소개한다. 예술제는 지역 식품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 전시와 더불어, 지역 식품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개발된 신제품의 시식회를 마련했다.



식품 개발 사업의 핵심은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혁신적인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지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은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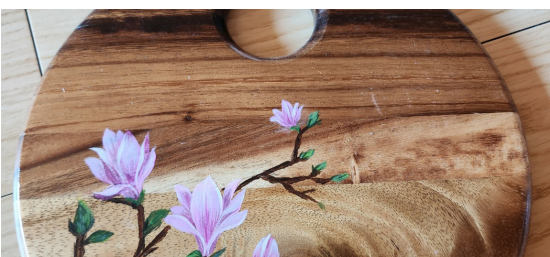
지역 주민들과 사업 참여자들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이 서수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를 더욱 활기차고 연결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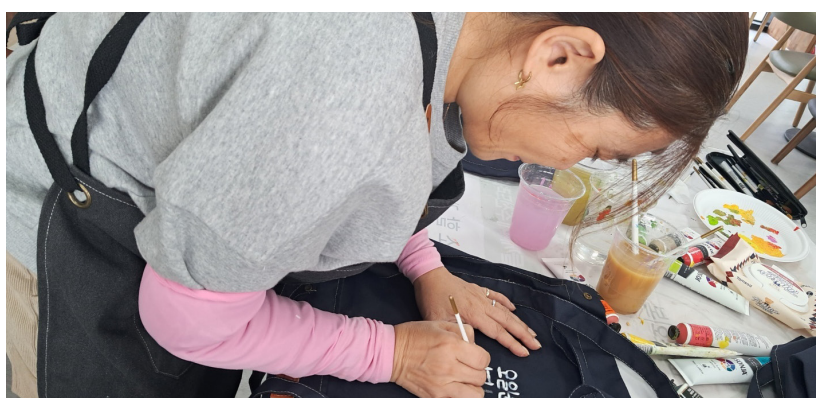


“식품 개발 사업을 포함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참여자는 말했다.



서수 지역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사회에도 영감을 주고 있다. 교육, 문화, 식품 개발의 결합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설날 불우 이웃돕기 행사 아이마을 .

서수면 농활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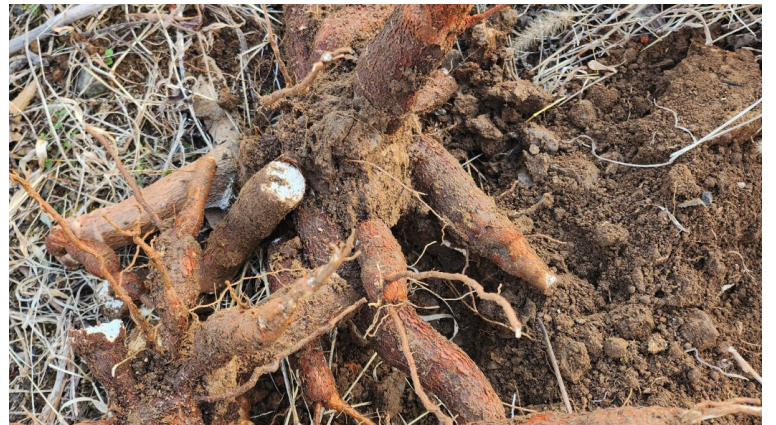


희망 나눔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완주군 봉동읍 오투그란데아파트마을	451,000
군산시 서수면 아이마을	203,400
임실군 청웅면 두북마을	92,000
임실군 청웅면 두북마을	210,000



가치를 재발견하는 서수면사람들

서수면사람들 농식품개발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



지속 가능한 발전

서수면의 약속

뿌리 깊은 마을

서수면에는 용룡자(龍)가 붙은 마을이 유난히 많은데 용회(龍回) 용전(龍田) 용성(龍成) 마룡(馬龍) 용귀(龍歸) 신용귀(新龍歸) 등이 그것이다.

용귀마을에 얹힌 유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용은 본래 수원과 관계가 있고 또 그 산 모양이나 명당의 일컬음으로 연유하여 지명으로 쓰인 경우가 많은데 서수면 마룡리 용귀마을도 그와 같다. 용귀는 수시제(水柴堤)와 회룡은산형(回龍隱山形)의 명당을 말함이 바로 그것이다.

마룡리는 용귀마을 원용귀(元龍歸) 장관리(長串里)는 상장관(上長串) 하장관(下長串) 등이고 옥하리(玉下里) 등이 거기에 따른다. 이 중 장관리는 산의 모양이 들안으로 깊어 뾰(岬 = 갑)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고 「상장관」 「하장관」은 마을이 커지면서 위 아래뜚으로 부르다가 갈라 이름한 것이다.

마을의 형성연대는 마한시대(馬韓時代) 때부터 인간이 거주하였다고 추정한다.

원래 여기는 임피현 남이면인데 원 산줄기는 함라 뒤 함라산과 원관원의 옥녀봉 그리고 나포의 축성산의 여러 줄기가 여러 곳에서 이르러 한 가지와 같은 줄기의 끝부분을 이룬 곳이 이 「용귀마을」과 「장관리」의 위치이다.

「용귀」는 귀룡천수(歸龍穿水) 다시말하면 용이 물을 털어내는 형국으로 용이떠나지 않고 머물으니 좋은 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이 마을은 옛부터 수원이 좋아 수리시설이 근대화되기 이전에도 그리 고통을 겪지 않고도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어느 곳이건 파기만하면 물이 나와 이무리 가물어도 물걱정을 한 적이 없고 논베미에도 물을 잡기가 수월해서 어지간한 가뭄에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수시제의 수호와 풍년을 기원하는 하천제를 정성껏 지냈더니 수시제에서 달아났던 용이 다시 돌아왔다는 전설에서 용귀리(龍歸里)라 호칭하였다’ 한다

옥하리는 다른 이름으로 수리(水里)라고도 부르며 그래서 인지는 모르나 이 마을 아래쪽에는 옥하제(玉下堤)가 있는데 이 방죽은 꽤 나 오래된 방죽이고 제방이 그리 높지는 않아도 물은 항상 넉넉하게 잡을 수가 있다. 과연 용귀천수(龍歸穿水)나 수시제(水柴堤)라 할만하다.

옥하리 즉 수리에는 갈마교(葛馬橋)가 하나 있었다. 지금은 논두렁 길만으로도 아무데고 갈 수 있어졌지만 옛날엔 다리가 없이는 용귀마을과 옥하마을이 서로 내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개울은 장관리를 거쳐 임피 들산을 거쳐 멀리 대야를 거쳐 만경강 깊숙이 떨어졌던 큰 개울이었다. 이 개울의 수원은 멀리 익산에서 시작되나 용귀에 이르러 갑자기 많아져 커졌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수원이 넉넉했던 용의 마을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용과 말과 관계된 이름은 산의 형세가 말형으로도 보았기 때문인데 갈마교의 갈마(葛馬)는 갈마음수(葛馬飲水) 즉 말이 물마시는 모양의 말에서 따온 이름이다. 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말이 물마시는 형국을 상상했을까 차근차근 생각해 볼만 하다. 그리고 옥하리에는 옥(玉)씨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데 옥(玉)자의 인연은 우연이라 할 수만은 없다.

이 근방 마을의 생활권은 임피현에 속해 있으면서도 황등(黃登)이었다. 장이 임피읍과 황등에 다같이 섰으나 가까운 임피장이 아니라 황등장을 택했다. 이것은 옛부터 황등장이 훨씬 컸고 거래하기가 용의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고장의 지명유래. 군산문화원 이하범 제공

수시제 이야기

노성식씨와 인터뷰

조사자: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식: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을에서 나서 구십사 년을 쪽 살아왔으니 아는 대로 이야기 해 줄게

조사자: 원용귀 마을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노성식: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을 신용귀 마을로 분가를 시켜서 큰 동네가 되었어. 돌아가신 노공식씨 집안이 잘살았거든, 그러니 노가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지는 나도 모르지만, 이곳에 터를 잡고 살다가 자식들을 중용귀까지 분가시켰고 그 집안에서 땅을 내놓아 마룡 국민학교가 생겼지.

조사자: 아 그렇군요. 좋은 일을 하셨네요.

노성식: 암 좋은 일이지. 그리고 이 마을에 귀룡청수의 명당자리가 있다는데 그 자리가 노공식씨의 집 뒤야! 그래서 집안 조상들의 선영을 그리로 이장을 하였지. 거기서 보면 수시제가 바로 보이는데 그 방죽 물이 청수에 해당한다네 옛 어르신들의 말로는 수시제 때문에 명당의 발목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더구먼

조사자: 그렇군요. 수시제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없나요?

노성식: 그 뭐냐 옛날에 수시제 그 아래 넓은 들을 그 물로 농사를 지었어! 70년대 초까지도 요 앞 수시천에는 참게나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농지정리가 되고 농약 때문에 물고기 씨가 말랐지만 송사리부터 붕어 잉어 장어 미꾸라지 등이 부지기수로 있었지. 어쨌든 수시제에 용이 살았는데 어느샌가 용이 나가고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마을에서 풍장을 치고 제물을 장만하여 기우제겸 하천제를 지낸 후에 나갔던 용이 들어 왔다고 해. 그 뒤로 풍년이 들고 잘살았 데. 그래서 용이 되돌아왔다고 해서 용귀리 라고 불렀다나.

조사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노성식: 그리고 이진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도깨비불이라고 있었지. 날קות이 날에는 저 넓은 들에 도깨비불들이 빗가리처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여 무섭기도 하였지. 그전에는 소를 잡지 못하게 하였어! 해방 직후 술 먹을 때 귀중이네 집에서 새벽에 몰래 소를 잡기로 하였는데 마룡초등학교 뒤쪽에 아릅드리 소나무가 죽었는데 그때는 톱같은 연장이 없어, 그래서 화목으로 쓰려고 베려 해도 못 베고 있는 거야 우리 큰집에 마침 큰 톱이 있어 그걸 빌려다 새벽에 남들 눈에 안 떨어 때 비는데 커다란 혼불인가 도깨비불인가 하는 것이 저 넘어에서 넘어오더니 상구씨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더니 장곤리 공동묘지 쪽으로 나가더라고 그 뒤로 사흘 만에 앞에서 말한 대로 귀중이네 집에서 소를 잡는데 소피가 몸에 좋다고 하니 허니 상구씨가 소피를 먹었는데 목에서 소피가 영기었는지 그분이 돌아가시었어! 그런 일이 있었지 암 있었지

조사자: 오늘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조사자 이하범

쥐쫓도 모른다는 말의 유래

‘쥐쫓도 모른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있잖여.
 쥐쫓도 모른다 라고 안혀? 쥐쫓도 모르는 놈이 쥐쫓같이 지
 랄한다고 하잖여.
 어째서 쥐쫓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왔는가는 메누리(며느
 리)께서 나온 소리여.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한 몇 명이 돼는디 아 인제 아들도 얻
 고 편히 살려고 이리저리 돌아 다닌다고 다디다 본게,
 다리밑에서 쥐란놈 하나가 해골바가지 하나를 갖다가 놓더
 니 지발로 딱딱딱 굶더니,
 대가리에다 써보고 뱃변을 그러능겨 쥐란놈이 저렇게 좋
 은 재주가 있나 허고는 해골바가지를 갖다가 머혈러고 근
 다냐? 그러고 있는디

아 이 쥐란놈이 발로 꼬작꼬작 허더니 대갈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써보고 또 써보고
 딱 맞응게 점잖은 영감으로 딱 변해가지고는 터벅터벅 다
 리밑에서 올라왔단 말여.

희한하여 영감이 된 쥐란놈을 졸래졸래 따라가봉게, 저그
 집으로 들어가 쥐란놈이

그런디 아들놈이 나와서 “아 아버지 어디를 갔다오쇼
 잉”
 하다못해 할멈도 “아이 영감 인제사 오쇼 어이 들어오
 쇼”

저그 아버지가 화가 잔뜩나 어찌 쥐보고 그냐고 그런게
 어떤 미친 영감이냐고 할멈도 때리고 아들놈도 때리고 하
 여 진짜 아버지를 쫓아낸겨.
 그런게 영감이 올디가 갈디가 있는가 마누라도 안 붙여주
 고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도 붙여주질 안혀 근게 거지가 돼
 서 얻어먹고 대니네, 저 냇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거기서
 밥을 얻어 먹고 땡겨

쥐란놈은 아들한테 메누리한테 대우 받고 마누라하고 잠
 자고 살어

영감은 어디도 붙여주덜 안헌게 오도갈디가 없고 한 일이
 년 그지그지 상거지가 되었는데
 한 번은 밥을 얻어 갖고 오닌게 아 팽이 한 마리가 씨러져
 서 물에 떠내려와 금방 죽게 생겨거든, 그런 팽이를 딱 건
 져내 살려 놓았어. 밥도주고 어찌고 헌게 팽이가 살아서 둔
 갑하여 사람이 되얏어. 그것도 여자가 되얏어 그래서 같이
 밥을 얻어먹고 살어 시방.

근디 한번은 “어째서 당신은 거지가 돼있오?” 라고 각시
 가 된 팽이가 물어

그래서 쪽 이야기 형게

귀앵이가 생각허더니 내가 영감을 살려주리다. 오늘 저녁
 은 자고 내일은 가서 그 집을 들어가쇼 글고 처 자식 다 불
 러놓고 시비를 거시오.

“저그 아버지 있는디,,,,,
 ” 이놈아 내가 기지 저놈이 기냐? 어떤 놈을 데려 놓고 이
 야단을 허냐. 내가 니 애빈가 저게 니 애빈가 보든 알겨 아
 녀 “

그러더니 귀앵이 한 마리를 띄허니 품안에서 내려 놓은게
 팽이란놈이 달려가 맥아지를 짹물어 죽여놓고 보닌게 큰
 놈의 쥐거든.
 어이가 없어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메누리가 헌 소리여

” 어머니는 쥐쫓도 모르고 사람쫓도 몰라요? “
 허허허 메누리가 시어머니 한테 쥐쫓도 모르냐고 헌 말여

그래서 거시기헌 사람보고 쥐쫓도 모르냐고 허는거여

<출처; 군산구비문학대계. 군산문화원. 설화 16>

왈운정 은행나무의 전설

최동주(1930-2001)

옛날 연대나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구전으로 전해 내려
 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은행나무는 아주 옛날부터 자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서수면에 있는 왈운정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현감 벼슬을
 임명받고 임피 고을로 부임 행차하게되면 임피 관아 고을
 에서는 첫 번째 관문인 왈운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 정
 자를 세워 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정자가 어찌 정교하
 고 구름에 오색영롱하여 아름다웠던지 왈운정이라 명명하
 고 칭송하게 되었답니다.

어느날 구관 사또가 가시고 임금님 명에 따라 신관 사또
 가 고을 원님으로 집무하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관아의 현
 감이면 백성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원님의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신관 사또는 세전도 과하게 메기고 백성들의 노동
 력 착취는 다반사 였고 어찌나 포악한 원님이었는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먹을 것이고 뺏기고 마음 내키는 대로 착취
 하였답니다.

한편 인근에 수백 년간 서 있는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에게 올해부터 은행 3석을 바
 치라는 엄명이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방은 아연실색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였으나 우수순풍 하여 풍년이 된다고 하여
 도 3석의 수확은 불가능하여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해부터 이 은행나무에서 은행
 이 한 톨도 열리지 않았답니다.

원님한테 매년 닥달당하느라 자나 깨나 걱정은 이방과 마
 을 주민이었지만 원님에게 불기를 내줄지언정 어찌할 방도
 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세월이 어언 3년째 흘렀고 포악한 원님이 바뀌고
 인자한 새 사또가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해부터 은행이 주렁주렁 열리고 구 사또를 원망
 하면서 새 사또를 칭송하게 되었답니다.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및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항의문

군산시 서수면 행정기관 관계자 여러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사)서수면사람들을 대표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서수면 행정기관 면장을 비롯하여 일부 단체장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며, 커뮤니티의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진정한 참여와 지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공무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행정기관의 노력

군산시 서수면 행정기관이 이 문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 일동



* 서수면마을신문: 연락처/ 편집국 010-4643-1149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3 * 사업국: 010-9286-8239

* 기사제보: 010-4643-1149 Email: yhchoi25@naver.com

* 후원계좌번호: 우체국: 100-0000-66123 예금주: (사) 서수면사람들